

FAMILY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금융희망재단 2025 사회책임보고서

아름다운 동행

YOUTH



SOCIETY



보고 목적

본 <신한금융희망재단 2025 사회책임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주요 사업과 활동을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보고 범위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개한 주요 사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청년, 사회, 문화예술·지역사회와 같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 지원 활동과 성과가 기록되어 있으며,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사회적 가치는 신한금융그룹 고유의 측정 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측정값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바로가기

보고서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신한금융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본 보고서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해 청년, 사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가정과 청년,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용적 지원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합니다.

금융그룹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는 안정적인 일상을, 청년에게는 성장의 기반을,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더하며 함께하는 가치를 넓혀갑니다.



CONTENTS

03 이사장 인사말

04 한눈에 보는 재단 사업

05 2025년 주요 성과

CHAPTER 1

가정과 의 동행, 집에 온기를 더하다

10 위기가정 지원사업「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14 신한 꿈도담터

18 희망학교 SW교실

22 신한 금융교육(신한이지)

25 어린이집(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CHAPTER 4

문화예술·지역사회와의 동행, 공감을 나누다

58 문화예술지원사업

59 해외장학사업

60 학술지원사업

CHAPTER 2

청년과의 동행, 내일의 성장을 열다

28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신청해)

32 글로벌 영 챌린저(신한 GYC)

36 신한 커리어온·커리어업

38 청년 해커톤

42 장애인 일자리

Shinhan ESG Value Index

62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와 결과

CHAPTER 3

사회와의 동행,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다

46 스타트업 지원(신한 스퀘어브릿지)

52 사회적경제 지원

54 솔선수범 릴레이

복지 현장에서 한층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진 아름다운 동행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진옥동입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청년 그리고 사회 곳곳에 손을 내밀며,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업들을 통합해 그룹 대표 사회공헌 사업「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를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도움을 보다 적시에 지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그냥드림」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린 뜻깊은 사례입니다. 앞으로는「그냥드림」사업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을「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와 연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융교육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그룹사 통합 금융교육 플랫폼「신한이지」는 인천금융교육센터를 개소해 오프라인 금융교육으로도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체험과 참여 중심의 아동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까지 금융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신한이 청년을 응원해」사업을 통해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지방 청년들의 정주비와 학습비를 지원해 왔고, 작년에는 지방에서 상경해 학업을 이어 온 향토학사 출신 취업준비청년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기업의 실무 과제를 수행하는「신한 스퀘어브릿지 청년 해커톤」사업도 새롭게 출범해 직무 경험을 쌓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의 활동이 현장에서 보다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 파트너분들의 헌신과 협력 덕분입니다. 사업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며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는 힘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
진옥동



한눈에 보는 재단 사업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사회 각 영역의 필요를 반영해 사업을 설계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하며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요 사업을 이어갔으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부합하는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

가정

위기가정 지원사업「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위기가정 지원
3,257가구 | **9,509**명

위기가정 지원금
46억 5,500만 원

신한 꿈도담터

돌봄공간 조성 및 기자재 지원
19개소 | 누적 **232**개소
※ 폐소 포함

돌봄공간 연간 이용자
94만 7,200명

아동 및 부모 교육 지원
1만 1,403명

희망학교 SW교실

SW교실 참여 학교
82개교 | **392**학급

SW교육 참여 학생
2,529명

희망학교 SW캠프 개최
11개교

신한 금융교육(신한이지)

어린이·학부모 금융교육 지원
2,676명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952명

대학생·사회초년생 금융교육 지원
512명

취약·위기가족 금융교육 지원
4,356명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60건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조회
77만 회
※ 유튜브 발행 콘텐츠 조회 수 포함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자녀 지원
11명
※ 신이한이 일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25.9.)

청년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신청해)

지원 청년

1,800명

정주비용 지원금

8억 2,490만 원

학습공간 연계 지원금

4억 4,960만 원

글로벌 영 챌린저(신한 GYC)

해외취업 지원

6기 51명 | 7기 48명 (종료)

해외취업률

80%

※ 6기 기준 성과 / 7기 진행 중

신한 커리어온·커리어업

신한 커리어온 참여 고등학생

2,752명

신한 커리어업 참여 청년

150명

청년 해커톤

지원 청년

93명

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

7개점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자

86만 3,655명

※ 온·오프라인 합산

사회

스타트업 지원(신한 스퀘어브릿지)

육성 멤버사

99개사

투자 유치(연계)

786억 8만 원

기업 가치 상승

2,824억 9,000만 원

연간 일자리 창출·유치

1,219명

CES혁신상 수상

17개사

아기유니콘 선정

3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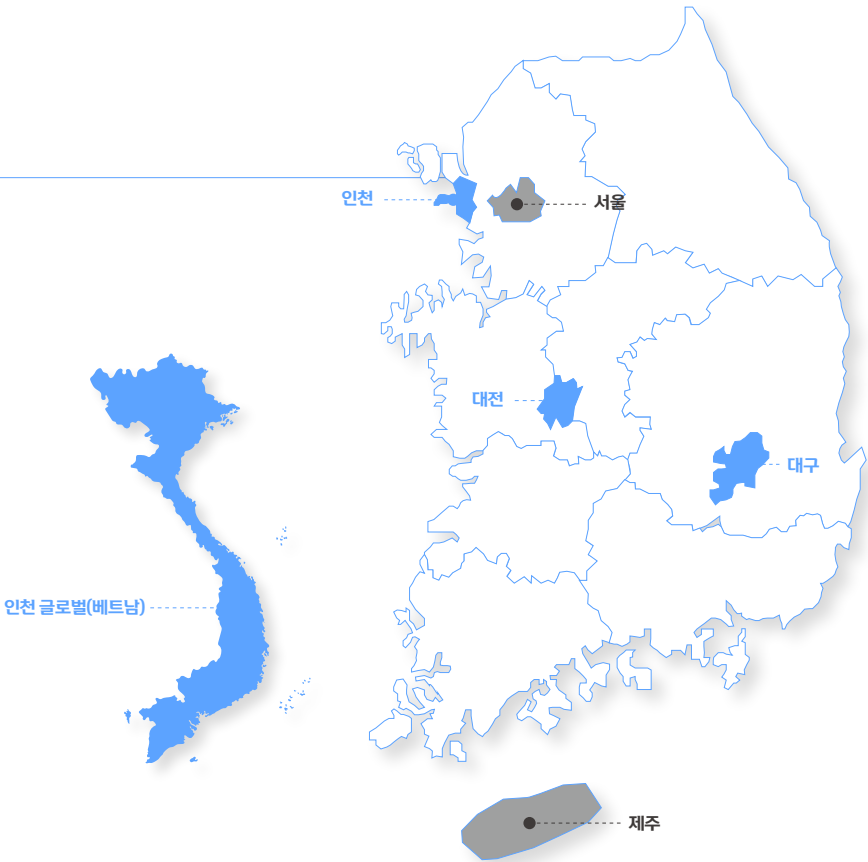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지원

운용 펀드

5개

사회적기업 투자

4억 500만 원



솔선수범 릴레이

모금액

3억 3,769만 1,100원

문화예술·지역사회

문화예술지원사업

클래식 유망주 선발 및 장학금 지원

7명

수상자 연주회 개최

15회

해외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165명

장학금 지원

8,500만 원

학술지원사업

연구원 선발

13명

장학금 지원

10,000달러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돌봄·육아 공동체
신한 꿈도담터

#균등한 기회
희망학교 SW교실

#금융 이해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지)

가정과의 동행,
집에 온기를 더하다

FAMILY

가정의 온기가 이어질 때, 우리 사회도 따뜻해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진정성 있는 지원을 전하고, 일상의 안정을 든든히 지키며
모든 구성원이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갑니다.



위기가정 지원

3,257가구 | 9,509명

위기가정 지원금

46억 5,500만 원

2025년 우수 사례관리 공모전

사회복지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경남 상하복합사회복지관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

서울 대방종합사회복지관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이사장상

서울 흑석종합사회복지관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관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경찰청장 표창

충남 천안서북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

서울 구로경찰서

인천 미추홀경찰서

위기가정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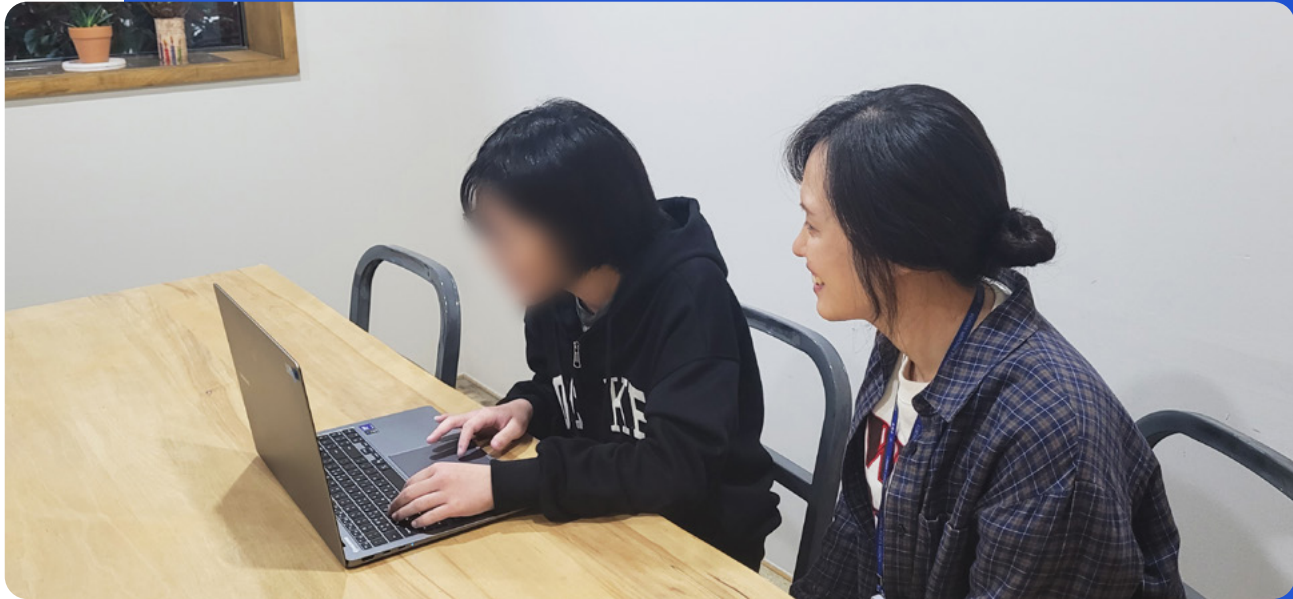
위기의 순간, 신han과 함께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범죄피해 가정을 발굴해 일상의 회복을 돕습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경찰관이 중심이 되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단기 위기 대응부터 장기적 자립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지원 항목

대상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비 · 단순 사례 : 최대 100만 원 지원 · 집중 사례 : 최대 300만 원 지원
사례관리자	· 사회복지사·경찰관 대상 '우수 사례관리 유공' 표창

* 사례관리

주거, 생계, 의료, 고용, 심리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가정에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업무



보건복지부 '그날의 힘' 사업 연계 지원

신한금융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그날의 힘' 사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을 본 사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의 한계를 넘어선 현장의 힘

배주연 사회복지사 | 서울 대방종합사회복지관



Q. 우리 학생(가명)의 사례관리를 오랜 기간 담당하셨지요?

A. 네, 우리가 초등학교일 때부터 저희 복지관에서 모니터링 해 온 기초생활수급 조손가정이예요.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는 등교를 거부하며 학업 중단 의사까지 보였어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돌봄 공백과 심리적 위험까지 겹친 긴급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평소 라포가 잘 형성되어 있던 저희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움직이며 통합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Q. 할아버지의 사망 이후, 우리 학생에게 공적 지원이 없었나요?

A. 기초생활수급비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세대주가 사망해도 중단돼요. 여러 경로를 통해 외할머니에게 연락했고, 우리의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했어요.

Q. 지원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A. 외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돌보게 된 상황이다 보니 양육비가 필요하시잖아요. 우선 생필품과 생활용품, 양육비를 지원해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렸어요. 이후에는 오랫동안 의지했던 할아버지의 부재와 왕래가 없던 외할머니와의 새로운 동거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 치료도 연계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댄스와 연계된 '댄스 테라피'였죠.

Q. 사례관리자로서 이 사업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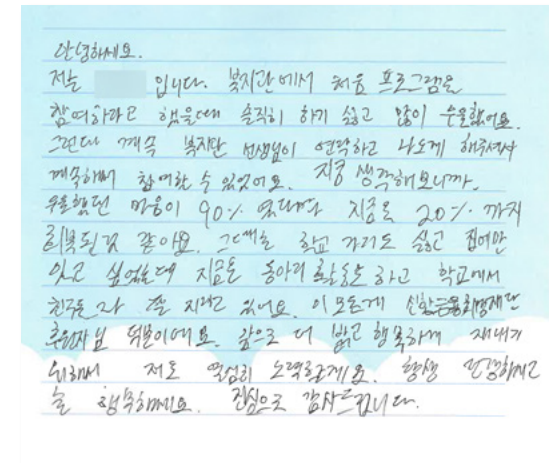
A.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는데, 한계에 부딪히면 무기력해져요. 이 사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지원해 주어 그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해줬어요. 제가 더 전문적으로 설계해 개입할 수 있게 해주니 일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요.

Q. 이 사업이 다른 지원사업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신청 후 실제 지원까지 얼마나 걸릴지부터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행정적 부담보다 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우선 필요한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점에서 위기개입과 사례관리의 본질에 더 가까이가갈 수 있었죠.

Q.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사실 꼭 수상하고 싶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수많은 민·관 기관들이 협력해 한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으니까요. 현장에서 복지 지원을 연결하다 보면 사회안전망의 빈틈을 느끼게 되는데, 이 사업은 그 공백을 보완해 주며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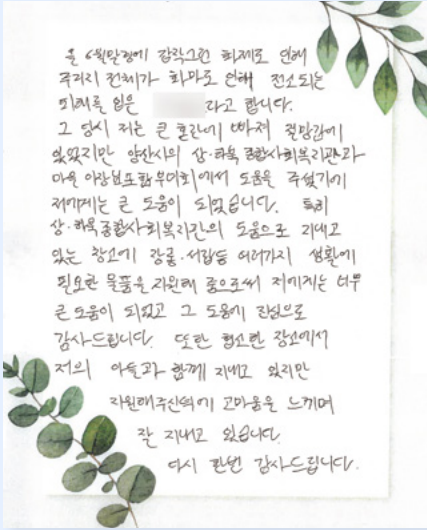


〈우리 학생의 감사 편지〉

긴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지원

김현수 사회복지사 | 경남 양산시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지난해 6월, 민수 씨(가명)의 집이 화재로 전소됐다. 아들을 혼자 돌보며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책임지던 민수 씨에게 집은 고된 노동 후에 몸을 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버팀목 같았던 공간을 잃은 후, 민수 씨는 일을 중단하고 삶의 의지마저 놓을 만큼 깊은 위기에 놓였다. 민수 씨는 주거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가족 및 법적 문제까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머물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행정 절차가 복잡한 공적 지원보다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는 「위기의 순간, 신함과 함께」를 통해 임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생필품을 지원했다. 마을 이장과 동네 부녀회의 도움으로 과거 창고였던 공간은 방과 부엌을 갖춘 생활 공간으로 바뀌었고, 이불과 수납장이 들어서자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집이 되었다.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일하러 가야죠”라는 민수 씨의 말은 마을 주민과 지역사회,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였다. 민수 씨의 거주 불안이 장기화되었다면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다. 본 사업은 그 불안을 신속히 완화하며 민수 씨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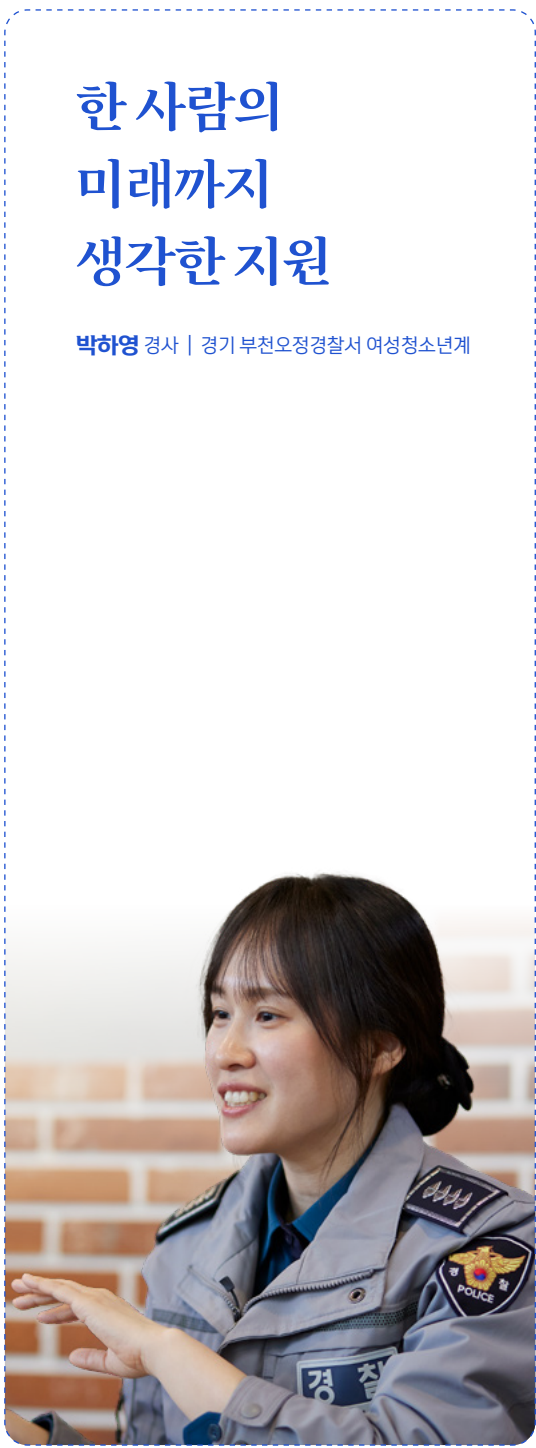


〈민수 씨의 감사 편지〉

절박한 누군가에겐 새 삶을 살아갈 용기

최보라 경위 | 서울 송파경찰서 여성보호계

소연 씨(가명)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남편의 폭력은 어린 딸 앞에서도 서슴없었고 딸 역시 불안에 휩싸였다. 생명의 위협마저 느낀 소연 씨는 집을 나와 경찰서에서 연계해 준 임시 숙소에서 머물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였기에 한부모 가정에 제공되는 공적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다. 주거·생계·양육·안전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연 씨를 위해 본 지원사업에 문을 두드렸다.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소연 씨는 심리 치료를, 딸은 놀이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다. 생활이 안정을 찾아갈 때쯤 소연 씨의 자립을 위해 복직 계획을 함께 세우며 복직 시기를 조율했다. 경제적 안정이 심리적 안정으로, 그것이 다시 자립 의지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순간이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했던 소연 씨는 “신한금융희망재단 덕분에 아이와 함께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며 작은 도움이 절박한 누군가에게는 새 삶을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한 사람의 미래까지 생각한 지원

박하영 경사 |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Q. 유나 학생(가명)은 원래 담당하시던 사건이 아니었지요?
A. 네, 저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과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인데, 어느 날 학대 전담 경찰관으로부터 유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유나는 남동생과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던 학생이었는데,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학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유나가 성격이 밝고 재능이 많아 도와주고 싶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도와줄 마땅한 지원사업이 없으면서 저의 부서에 도움을 요청해 알게 됐어요.

Q. 유나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했나요?
A. 유나는 가정 폭력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교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학생이에요. 영상 제작에 흥미와 재능이 있어 PD를 꿈꾸고 있었는데, 하지만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생활하며 개인 장비 없이 노트북과 헤드셋이 생긴다면 유나가 자신의 재능을 더 자유롭게 펼치고,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지원사업을 신청했어요.

Q. 기존 지원 제도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A. 범죄피해자 지원은 주로 신체적·정서적 회복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원 범위와 기준이 제한적이다 보니, 피해자의 진로나 미래까지 이어지는 자원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복 이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기도 하는데, 마침 신한금융희망재단이 경찰청과 협약을 맺으면서 저의 팀에서도 2024년에 7개 가정, 2025년에 13개 가정을 지원할 수 있었죠.

Q. PD를 꿈꾸는 학생에게 노트북 지원이라니, 무척 좋아했겠네요.
A. 사실 유나가 노트북을 마련하기 위해 센터 내 자립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노트북 지원 이후에는 모은 돈을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하는 유나 학생〉

청약통장에 넣고, 영상학과 진학을 위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그 사이에 큰 성과도 있었어요. 지원받은 장비로 제작한 영상이 단편영화제에서 수상했거든요. 자기 장비로 제작하니 반납 기간에 쫓기지 않고,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Q.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A.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률적인 지원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업은 그런 욕구를 상황에 맞게 채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느껴요. 피해자마다 처한 상황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많지 않거든요.

Q.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A. 경찰관이 장관 표창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 수상을 통해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뚝뚝한 유나 덕분이죠. 유나는 책임감이 큰 친구라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위해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는 또래 친구들처럼 나이에 맞는 일상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유나가 자신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신한금융희망재단에 감사드려요.



돌봄공간 조성 및 기자재 지원

19개소 | 누적 23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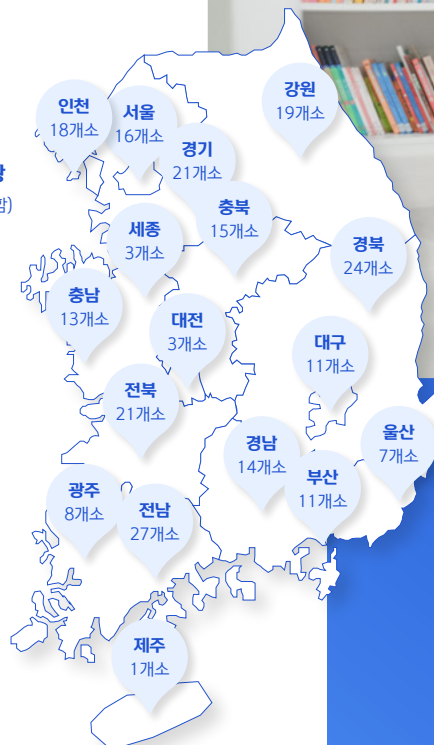
※ 폐소 포함

돌봄공간 연간 이용자

94만 7,200명

아동 및 부모 교육 지원

1만 1,403명

'신한 꿈도담터' 전국 현황
(2025. 12. 누적 기준, 폐소 포함)

신한 꿈도담터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지역사회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민공동시설이나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하고, 이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합니다. 또 영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금융, 독서, 창의, SW교육 등 성장형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공백을 줄여 부모가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란 초보 아빠의 육아 자신감

이도현 님 | 경기 파주시 '신한 꿈도담터' 210호점 이용 학부모



맞벌이 가정인 이도현 씨는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돌봄에 대한 고민이 컸다. 부부에게 주어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아내가 먼저 5개월을 사용한 뒤 이어서 이도현 씨가 6개월간 휴직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 전 한 달간 돌봄공백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의 도움을 받았다.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찾은 '신한 꿈도담터'

이도현 씨가 딸아이를 안고 '신한 꿈도담터'를 찾기 시작한 것은 장모님 덕분이다. 지역 내에 공간이 생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 데려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장모님께서 한번 데려가신 후로 '신한 꿈도담터'는 딸아이의 단골 키즈카페가 됐다.

오전 10시쯤 가서 오래 친구들과 놀다가 점심 때가 되면 집에 돌아와 식사와 낮잠을 마친 후, 다시 방문해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여기에서 친구도 사귀고 미끄럼틀 타는 법도 익혔다. 딸아이가 이 공간을 좋아하는 것은 이도현 씨에게도 기분 좋은 일이었다. 손녀를 위해 낯선 곳에 와 계신 장모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신한 꿈도담터' 덕분에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초보 아빠, 함께 육아를 시작하다

'신한 꿈도담터'는 초보 아빠인 이도현 씨에게도 특별하다. 양육태도 검사와 부모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양육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지난해 가족 프로그램의 개근 참여자이기도 하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맞벌이 가정을 배려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니 더 감사하죠.”

아이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 딸아이가 오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후 이도현 씨 가정은 자연스럽게 '돌봄 품앗이'*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오래 가정과도 친해졌다.

* 돌봄 품앗이

부모 간 자조모임을 기반으로 자녀 돌봄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

“둘 다 퇴근이 늦어질 땐 어떡하나 걱정한 적 있는데, 품앗이로 가까워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든든했어요.”

아이들은 함께 모여 두부와 뽕튀기로 촉감 놀이를 하고, 부모들은 예방접종 시기 등 육아 정보를 나누는 든든한 동지가 되었다.

초등 입학 후에 더 이용하게 될 돌봄공간

이도현 씨는 '신한 꿈도담터' 210호점이 영유아 돌봄을 넘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까지 지원하게 된 점을 반갑게 바라보고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졸업한 뒤에도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어,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린이집 하원 후에 이용하지 못해 아쉽지만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초등 저학년은 일찍 하교해 이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많은데, 초등 돌봄까지 지원해 주니 너무 든든해요. 이사 계획이요? 당연히 없죠!”

이러한 공간이 집 가까이에 있어 의지가 된다는 이도현 씨는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돌봄은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언제든 믿고 보내는 우리 아이 배움터

정지은 님 | 인천 서구 '신한 꿈도담터' 226호점 이용 학부모
박소정 님 | 경기 양평군 '신한 꿈도담터' 230호점 이용 학부모
사공은 님 | 경북 울진군 '신한 꿈도담터' 219호점 이용 학부모



Q. '신한 꿈도담터'는 어떤 계기로 이용하게 되셨나요?

A. 사공은 울진은 지역적 특성상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죠. 그때 '신한 꿈도담터'를 알게 되었고 금융, 독서, 소프트웨어 같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꾸준히 이용하고 있어요.

정지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초등학교 자녀를 방과 후나 방학 기간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박소정 미취학 자녀 두 명을 키우며 집에서 돌보는 데 어려움을 느껴 돌봄공간을 찾던 중 '신한 꿈도담터'를 알게 됐어요.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Q. 그 전에는 돌봄공백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A. 사공은 학원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근무시간과 아이의 등·하원 시간이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신한 꿈도담터'를 이용한 후에는 돌봄 부담이 줄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정지은 저희도 학원을 보냈지만 사실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다녔죠. 그런데 '신한 꿈도담터'는 아이들이 먼저 가고 싶다고 해요. 친구들도 많고, 다양한 교재와 교구가 있어 즐겁대요.

박소정 학원이나 다른 시설에 보냈지만 비용 부담이 있었어요. 집 가까이에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Q. '신한 꿈도담터'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A. 정지은 돌봄뿐만 아니라 체험형 교육을 받으며 사교육 부담이 많이 줄었고, 집에서는 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독서교육을 통해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됐고, 금융교육을 통해 돈의 개념도 자리 잡았어요.

사공은 맞벌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돌봄 문제가 큰 걱정거리인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됐어요. 덕분에 돌봄 걱정을 덜고 직장 생활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박소정 배움도 중요하지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 좋아요. 집에는 없는 다양한 장난감이나 책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가 계속 가고 싶어해요.

Q. 집 가까이에 돌봄공간이 있다는 것이 맞벌이 가정에 어떤 의미인가요?

A. 정지은 부모에게 큰 안정감을 주죠. 이동 부담도 없고, 긴급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사공은 외동인 아이가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집 근처에 있어서 안심이에요.

박소정 낮 시간에도 항상 열려 있으니 아이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집 가까이에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는 공간이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금융교육



창의교육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지역 안에서 '신한 꿈도담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갖춘다면 맞벌이 가정에는 자녀를 여러 학원에 보내는 것 외 또 하나의 돌봄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조성된 '신한 꿈도담터' 공간의 유지·보수와 현장 모니터링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동선과 가구 배치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센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김경서 주임 | '신한 꿈도담터' 운영사 아이들과미래재단



아이의 성장을 돌보며

방향 중에도 운영되는 '신한 꿈도담터'는 저출산 시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봄 품앗이 활동에 참여한 미취학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되어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해요.

장소라 선생님 | 경북 울진 '신한 꿈도담터' 219호점



함께 키우는

2018년부터 매주 품앗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5가정으로 시작해 지금은 7가정(자녀 14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죠. '신한 꿈도담터'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과 부모 모두 편하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또, 품앗이 지원비를 활용해 부모가 직접 놀이와 활동을 기획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더 다채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은 님 | 인천 서구 '신한 꿈도담터' 226호점 이용 학부모





SW교실 참여 학교

82개교 | 392학급

SW교육 참여 학생

2,529명

희망학교 SW캠프 개최

11개교

SW경진대회 참여 학생

489명

희망학교 SW교실

발달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대부분 학교에 한정되어 있고, 정규 교과 과정 내 디지털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역량을 키울 기회도 부족합니다. AI 시대에 발달장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희망학교 SW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W 지식과 함께 자립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며, 도서·산간 지역을 위한 ‘희망학교 SW캠프’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게 해준 SW 수업

서울애화고등학교 2학년 3반 학생 학부모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아이, 우리 선우(가명).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자폐성 장애로 학습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 1회 사설 센터에서 인지수업을 받고 있다. 인지 기능이 부족한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처럼 선우도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특수학교에는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장애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교 선생님들조차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것을 힘들어 하신다.

그런 가운데 ‘희망학교 SW교실’ 강사님들이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준 덕분에 인지 선우가 수업을 굉장히 흥미로워 했다. 종종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크다. 그런데 선우가 친구들과 SW경진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은 부모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되었다.

선우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 마땅한 교육이나 사회 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다. ‘희망학교 SW교실’처럼 앞으로도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지속되어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민준이(가명)는 기본적인 말하기, 읽기, 쓰기는 가능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나 복잡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매주 방과 후 언어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를 받고 있지만 수업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많다. 그런데 요즘 민준이가 집중을 놓지 않고 참여하는 수업이 있다. 바로 ‘희망학교 SW교실’이다. 디지털 기기나 로봇을 보면 두려워하던 아이였는데, SW 수업을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정말 의외였다.

선생님께서 민준이가 로봇 만들기 수업을 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영상 속에서 아이가 능숙하게 발표를 하고 있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민준이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며 자랑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다. 민준이와 친구들이 ‘코딩 지구방위대’라는 이름으로 SW경진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다.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왠지 모를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 그런 부모에게 아이가 무언가를 해낸 경험은 기쁨을 넘어 희망을 안겨준다.

특수교육은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이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해주니 정말 감사하다.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등 모든 일상이 디지털화되었지만 민준이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희망학교 SW교실’을 통해 민준이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가 줄었다는 것만으로 큰 변화라고 느낀다. 이 경험이 앞으로 아이의 변화를 더 기대하게 만든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꼭 필요했던 배움

서울애화고등학교 2학년 3반 학생 학부모



디지털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백미경 SW 강사 | 신한은행 퇴직자, 수도권 소재 특수학교 출강



Q. ‘희망학교 SW교실’ 강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A. 아이들 육아로 전업주부가 되기 전에는 신한은행 IT 부서의 개발자로 일했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과거에 개발자로 일한 경험을 살려 SW교육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중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던 중 ‘희망학교 SW강사’ 모집을 알게 되었고,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 지원하게 됐죠. 수업에 앞서 발달장애 이해 연수를 받고, 장애 관련 서적을 찾아보며 수업을 준비했어요.

Q. SW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A. 수업이 진행될수록 흥미를 느끼고, 잘 따라와요. 하고 시간에 부모님을 뵈면, 수업 시간에 사용한 교구를 아이가 사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종종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저에 대한 반가움도 크게 표현해요. 자기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 찾아와 창문 너머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손가락 장애가 있던 한 친구는 매 수업마다 손글씨로 쓴 편지를 주고, 제 이름을 디폼블럭으로 만들어 선물해 주기도 했어요.

Q.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는 강사님만의 비결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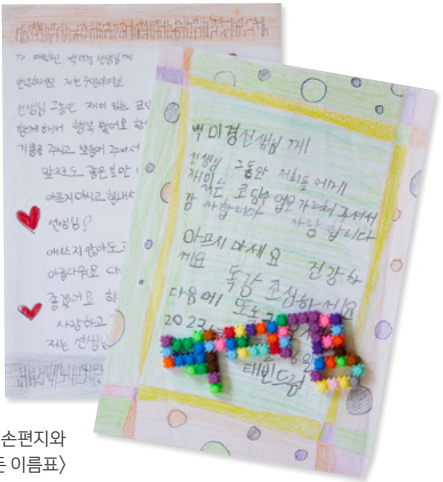
A.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생들은 낯선 사람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활용해 구연동화처럼 수업을 시작해요. “자, 오늘은 보로로가 교실에 놀러왔어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하거든요. 보로로 흉내를 내면서 코딩 로봇을 시연하면, 분위기도 자연스레 풀려요. 고등학교 전공반(취업반)은 지적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서, 그에 맞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Q. ‘희망학교 SW교실’ 강사로 6년째 활동 중인데,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A. 태블릿을 손에 쥐고 드래그를 어려워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화면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몰라 망설였는데, 수업이 이어질수록 조금씩 익숙해지더니, 마지막에는 원하는 그림이나 글자를 터치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더라고요. 또, 스스로 “이걸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구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수업을 통해 성취 경험을 쌓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껴요. 특히, 키오스크를 혼자서 사용해 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뒀하더라고요.

Q. 이 수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나요?

A. 장애로 인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수업이 그런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준다고 생각해요. SW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경험을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의미 있다고 느껴요. ‘희망학교 SW교실’을 통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어울려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우리 사회도 다양성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써준 손편지와 디폼블럭으로 만든 이름표〉

성장을 확인한 무대 ‘제6회 희망학교 SW경진대회’

대상 ‘희망학교 SW교실’ 참여 학생

목적 학습 흥미와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한 성취감 향상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로봇 제작 ‘SW창의개발’



입력한 코딩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미션 ‘로봇 코딩’

전국 특수학교로 찾아간 ‘2025 희망학교 SW캠프’

대상 도서·산간지역 특수학교 재학생

목적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캠프형 SW교육



직접 그린 선을 따라 로봇을 움직이며,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는 ‘오조봇’



로봇에 드라이빙 베이스를 조립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는 ‘스파이크 프라임’

수업 마지막 날, 학생들이 전한 마음



AI 코딩 블록을 쌓아 나만의 음악을 완성되는 ‘허밍블럭스’



어린이·학부모 금융교육 지원

2,676명

청소년 금융교육 지원

952명

대학생·사회초년생 금융교육 지원

512명

취약·위기가족 금융교육 지원

4,356명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제공

60편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 조회

77만 회

※ 유튜브 발행 콘텐츠 조회 수 포함



신한 금융교육

신한이치(easy)

일상 속에서 올바른 소비와 저축, 투자 판단을 내리는 금융 이해력은 개인을 넘어 가정의 안정과 미래 준비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맞는 금융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동부터 청년,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금융그룹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금융 습관 형성을 지원합니다.



NEW 모듈을 위한 지역 금융교육 허브 '신한이치 인천금융교육센터'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배울 수 있도록 조성된 인천금융교육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교육 거점 공간이다. 예금·대출 등 은행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창구를 비롯해 디지털 체험 부스,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

어린이 금융교육

어린이 금융교육

처음 돈을 접하는 시기부터 올바른 소비 기준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게임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도록 합니다.

청소년 금융교육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세전·세후 개념), 월급 관리 등 필수 금융 지식과 개념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약·위기가족 금융교육

대학생·사회초년생 금융교육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청년들이 금융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줄이고, 소비 관리, 저축과 투자, 위험 관리, 주거 준비 등 재무 전반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약·위기가족 금융교육

미혼모, 한부모, 1인가구, 저소득가구 등 다양한 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에 맞춘 금융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신한이치 플랫폼 금융교육

신한이치 플랫폼 금융교육

영상, 이미지 기반의 온라인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가정에서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손○숙 님 |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금융교육 참여

대부업체에서 빌린 부채 이자가 불어나고, 통장까지 압류되어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강사님께서 재무조정제도, 이자 제한법, 신용점수 확인법 등을 알려주셔서 제 상황을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이○혜 님 |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금융교육 참여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다 보니 40대인데도 자산관리에 무지했습니다. 배운 대로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꼭 필요한 소비인지 한 번 더 고민하며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은지 매니저 | 서울청년센터 은평 청년도전지원사업 담당

청년들에게 맞는 실사례로 교육하니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택청약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미래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용돈 관리에 대한 자기 판단력이 쑥쑥

신○진 님 | 인천금융교육센터 이용 학생(초1) 학부모

문○희 님 | 명동금융교육센터 이용 학생(초5) 학부모



Q. ‘신한이지’ 어린이 금융교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A. 문○희 아이 학교에서 학부모 경제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님이 ‘신한이지’ 강사였어요. 신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금융교육도 있다며 추천해 주셨고, 커리큘럼을 보니 소비와 투자 관련 내용이 아이에게 도움될 것 같아 신청했어요.

신○진 성인들도 돈 관리를 어려워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올바른 금융 개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직 은행원이셨던 어머니의 권유도 있어 아이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신한이지’를 알게 됐죠.

Q. 자녀가 수업의 어떤 부분을 가장 재미있어 했나요?

A. 문○희 글이나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통해 배운다 보니 아이가 전반적으로 재미있어 했어요. 화폐 종류를 배운 날에도 엄청 흥미로워 했는데, 특히 소비를 다룬 수업 이후에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신○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이야기 속 상황에 몰입하면서 모든 수업을 즐거워했어요. 또래와 함께하는 그룹형 체험 활동도 좋아했고요. 다음 수업이 기다려진다면 토요일마다 수업에 참석했고, 고학년이 되어서도 계속 듣고 싶다고 했어요.



Q. 금융교육 전과 후를 비교하면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문○희 이전에는 아이가 용돈을 받으면, 무조건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저금통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교육 이후에는 소비에 유연해지면서 상황에 맞게 저축과 소비 계획을 세워 용돈을 사용해요.

신○진 스스로 금융, 경제 관련 책을 찾아 읽기도 하고, 책이나 어린이 신문에 나오는 용어와 개념을 묻기도 해요. 덕분에 아이랑 금융, 경제, 정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어요.

Q. 어린 자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느끼셨나요?

A. 신○진 아이의 변화를 보면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됐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금융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됐고, 그 과정에서 경제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관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금융교육은 소득이 생긴 이후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어린 시기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희 아이의 소비 태도가 달라지는 걸 보면서 그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됐어요. ‘신한이지’는 부모교육도 함께 해주니, 아이와 서로 배운 내용으로 집에서 실천해 보는 재미도 생겼어요. 이런 금융교육이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2025년 3월부터 신한금융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부담 완화를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대상	신한금융그룹 및 인근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연령	만 5세 이하 어린이
시설	신한 신한이강북어린이집, 신한키즈 일산어린이집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대기업이 자사 및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시설



신한 신한이강북어린이집



신한키즈 일산어린이집

중소기업 자녀 지원

11명 ※ 신한이강북 일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전환(‘25.9.)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주요 지원

환경

영유아 발달 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배치

보육

놀이를 통해 배우고, 호기심을 채우는 프로그램

영양

전문 영양사의 식단에 맞게 직접 조리한 식사 제공

안전

일상적 안전 점검, 정기적 안전교육 실시

소통

개별 면담, 자녀 발달 보고, 부모 참여 수업 등 운영



#취업 부담 완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글로벌 역량
신한 GYC
(글로벌 영 챌린저)

#역량 강화
신한 커리어온
신한 커리어업

#실무 경험
청년 해커톤

#자립 기회
장애인 일자리

청년과의 동행,
내일의 성장을 열다

YOUTH

청년은 미래를 이끄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청년과의 동행을 통해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넓히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각자의 가능성을 발견한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의 여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청년

1,800명

정주비용 지원금

8억 2,490만 원

학습공간 연계 지원금

4억 4,960만 원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신청해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와 학업 기회를 위해 수많은 비수도권·지방 소도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동합니다. 낮은 환경 적응부터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미래를 위해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정주비와 학습공간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생상형 AI 기반으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참여 취업준비생 · 향토학사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 ※ 비수도권·지방 소도시 출신 및 중위소득 80%이하 청년 우선 선발 ※ 향토학사란? 고향을 떠나 서울시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숙사		
	정주비	주거비, 교통비, 식비, 교육비 등	월 최대 50만 원(지역별 상이)
지원 항목	학습공간 이용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유 오피스 등	월 20만 원
지원 기간	1인당 3개월(최대 6개월)		

내 미래의 가치를 높인 성장 에너지

김성경 '신청해' 2025년 3기 참여 청년 | 충북 옥천



Q. 폴리텍대학* 졸업 후에 취업도 하고, 최근에는 아직도 하셨지요?

A. 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PLC 제어**라는 직무가 70대가 지도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분야라 결원이 잘 나지 않는 데, 운이 좋았어요. '신청해' 지원금으로 책과 자격증 응시료를 마련하고, 실습에 필요한 장비까지 준비할 수 있었던 덕분에 훈련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규모가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싶었는데, 최근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Q. 본가와 수도권의 취업 준비 환경이 많이 다른가요?

A. 고향인 충북 옥천에는 일자리도 많지 않고, 취업 정보를 나눌 토대가 별로 없어요. 가까운 대전조차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았고요. 수도권은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과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어 옥천에서 준비했다면 여러 번 도전했어야 할 시험이나 자격증을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Q. 혼자 타지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A. 2년 전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고시텔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우체국 우편물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이후 폴리텍대학에 진학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 주거비 부담은 줄었지만 생활비나 자격증 준비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Q. '신청해' 지원금이 취업 준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A. 생활비 20만 원, 학습·교재비 30만 원, 스터디카페 이용료 20만 원 이렇게 70만 원씩 3개월간 지원을 받았는데, 덕분에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쓰지 않고 직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신청해'를 더 일찍 알았다면 취업 시기도 1년 정도 더 앞당길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Q. 다른 구직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나요?

A. 타 공공 지원사업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취업 여부나 성과 중심으로 관리된다는 부담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반면 '신청해'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지출만 잘 관리하면 되는 구조라 다른 부담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출 계획에 맞게 취업 준비와 학업을 이어가며 실행을 하다 보니 성취감도 있더라고요.

Q. 취업준비생에게 '신청해'는 어떤 의미일까요?

A. 저처럼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삶의 안정감과 여유를 만들어주는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스터디카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무료 공간만 찾다녔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이니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쌓이면서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취업 준비에 자신감도 생겼어요. '신청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가치를 높게 된 점이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 폴리텍대학 :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 기관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매칭해 주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 PLC 제어 : 산업 현장의 설비를 프로그램으로 제어해 스마트 자동화를 설계하는 직무

취업 준비를 이어가게 하는 힘, ‘신청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신청해’가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채○진 | 인천 부평

취업 준비의 걸림돌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정작 공부에 몰입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해 3기’에 선정되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 몰두한 덕분에 공공기관 인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 가점 및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고, 집 근처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며 NCS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면접 보러 갈 때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는 정주비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장○주 | 경북 구미

저는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쉬었음 청년’입니다. 또래에 비해 짧은 경력, 그마저도 조각 경력 투성이었습니다. 가고 싶던 공기업 최종 면접에서 탈락 후, 저만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교육을 병행하며 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컸습니다. ‘신청해’ 선정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한 결과 데이터 분석 분야의 큰 공모전에 비전공생으로 2차까지 진출했습니다. 팀원들과 출전했던 한 기관의 졸업 프로젝트에서 1등도 했습니다. 아직 취업이라는 큰 산이 남아 있지만 ‘신청해’ 덕분에 3개월 동안 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 ‘쉬었음 청년’에서 벗어나보겠습니다.

이○영 | 전남 담양

‘신청해’지원금으로 처음 카페에서 공부하던 날,누군가의 지원으로 쾌적한 공간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아직 번듯한 사회인이 되지 못했던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끼며 압박 속에서 취업 준비를 해온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씩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사진기능사에서 커피 바리스타로 훈련 직종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예전 같았으면 이 상황을 실패로 받아들였겠지만 ‘신청해’덕분에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생겨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바리스타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국내 1급 및 국제 intermediate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영 | 부산

화훼장식 분야로 취·창업을 준비했습니다.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소득이 없다 보니 생화재료비 부담에 사실상 실기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학원에서 사용한 꽃을 재사용하며 연습해야 했습니다. ‘신청해’를 알게 된 후에는 꽃시장에서 다양한 생화를 사입해 실기 연습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국비 자격 플로리스트 전문가 양성과정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해’와 함께한 시간, 달라진 나의 일상

혼자 자취하며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매달 나가는 식비와 관리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신청해’지원금 70만 원은 **낮선 도시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응원이었습니다. 교재와 참고서를 부담 없이 사서 공부했고,취업 준비가 고달플 땐 기차표를 예매해 본가에도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응원 잊지 않고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심○우 | 대구

서울에서 수업을 들으며 제가 어떤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찾고 싶었지만 지방에서 서울을 오가기에는 교통비와 식비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신청해’를 통해 영상편집과 디자인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두 분야는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전략과 기획 분야에 더 적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일 서울을 왕복하며 ‘마케팅·기획’수업을 들었습니다. **저의 역량과 저변을 넓히며** 적성을 찾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배○현 | 충남 계룡

지원금을 받은 3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작 미래를 위한 공부는 뒤로 미뤄왔는데, ‘신청해’덕분에 진로 준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 | 경기 시흥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지만 실무의 벽을 느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국비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훈련 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비를 해결하기에도 벅차고,배고픔과 이동의 불편함을 참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원금은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몰두해도 된다는 정말 든든한 위로**였습니다.

성○우 | 경기 하남

‘신청해’에서는 생활비를, 향토학사에서는 주거비를 해결한 덕분에 목표했던 전 과목 A+ 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4학년이 되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내가 마음먹고 준비하면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원 | 경기 용인

취업을 위해 제가 선택한 서울살이지만 **낮선 환경에 매달 나가는** 숙박비와 교통비는 꿈을 향해 나아가려는 저의 발목을 잡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를 알게 된 후, 생존이 생활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꿈꾸며, 진정한 홀로서기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송○서 | 충남 논산



해외취업 지원

6기 **51명** | 7기 **48명** (종료)

해외취업률

80%

※ 6기 기준 성과 / 7기 진행 중

글로벌 영 챌린저 신한 GYC

청년 구직자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외취업을 지원합니다.
국내의 연수를 통해 현지의 문화와 산업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국제적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해외취업 준비 제반사항 지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KOTRA 협력사업으로 해외취업에 필요한 어학, 이문화, 직무 역량 교육 제공 · 현지 Field Trip 및 취업준비 비용 지원
해외취업 매칭 지원	·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정보 제공 · 국가별 담당 코디네이터와의 1:1 토론키어를 통한 상시 취업 매칭 지원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 완주한 해외취업 마라톤

이효진 수료생 | '신한 GYC' 6기 베트남 과정

박세은 수료생 | '신한 GYC' 6기 일본 과정

이효진

박세은



Q. 취업한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이효진 베트남 박닌시에서 LS 일렉트릭 생산동 증축 공사 현장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건축학을 전공해 해외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비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희망했는데, 현재 그 목표에 맞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박세은 저는 일본 인재 서비스 기업에 내정되어 출근을 앞두고 있어요.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 인재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에요.

Q. 해당 국가로 취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박세은 어렸을 때부터 일본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국제지역학을 전공하며, 일본 관련 학문을 공부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유사성이나 차이점 등을 연구하고, 일본어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접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효진 성장하는 국가에서 저도 함께 성장하고 싶어 베트남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베트남이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발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서 '성장형 캐릭터'인 저와 '성장형 국가'인 베트남이 잘 맞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또 생활 환경과 문화가 한국과 비슷하고,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어서 한국인이 생활하기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Q. '신한 GYC'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나요?

A. 박세은 JLPT(일본어능력시험)를 준비할 때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는데, 100% 대면 연수에 해외 현지 연수까지 지원해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온라인 연수보다는 대면 연수가 더 효율적이고, 현지 체류 기간에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연수에 드는 모든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는 부분도 고려했구요.
이효진 국내 연수 이후 현지에서 직접 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국내에서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 취업 현황에 대해 배운 뒤, 현지에서 체류하며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해 보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건설이라는 비교적 특수한 직종을 희망했기에 직종 선택에 제한이 없던 것도 지원하게 된 큰 사유였어요.

Q. 국내 연수 중 어떤 부분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나요?

A. 이효진 제 영어 실력은 수능·토익 중심이라 회화에 약한 편이었는데, 국내 연수를 통해 많이 늘었어요. 문법을 틀릴까 봐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고, 어휘의 폭도 좁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업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했어요. 베트남어는 '신한 GYC'에서 처음 접했는데, 기초회화까지 익히게 됐고요. 그 경험이 면접 때 베트남 근무를 원하는 저의 진심을 잘 대변해 준 것 같아요.

박세은 저 역시 회화가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JLPT는 N1(가장 높은 레벨)이지만 대학교 졸업 후 일본어 공부를 쉬기도 했고, 일본 체류 경험이 없어 회화할 때마다 긴장이 컸거든요. 주 5일 일본어 수업을 듣고, 비즈니스 매너와 모의 면접을 거듭 연습하다 보니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그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대답할 수 있었어요. 최종 면접에서 "일본어 실력이 현지인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요. 면접장에서 긴장하면 일본인들조차도 비즈니스 매너를 실수하는데, 동기들과 선생님들과 연습한 덕분에 긴장감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Q. 해외 연수 경험이 현지 적응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이효진 베트남 교수님들과 소통하며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정말 좋았어요. 교수님들과 소통하면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거든요. 덕분에 일상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트남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집으로 초대해 주시거나 현지 과일을 소개해 주셔서 베트남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구요.

박세은 일본은 엔트리부터 최종 합격 통보까지 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즈니스 경어 표현이 중요한데요. 국내 연수 때 배웠어도 실제로 써보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외 연수에서 이메일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직접 써보고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럽게 익혀 지더라고요. 답장 속도도 빨라지고 기업 인사와 메일로 소통할 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국내에서 배운 내용을 현지에서 바로 적용해볼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Q. 혼자서 해외취업을 준비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을까요?

A. 이효진 해외취업은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언어나 비자처럼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서 그 과정을 혼자서 정리해 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늘어지는데, ‘신한 GYC’ 선생님과 멘토분들을 만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박세은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신한 GYC’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거든요. 일본 취업을 결심하고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신한 GYC’에서 선생님들, 선배님들, 동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준비할 수 있어 든든했고 취업 후 일본에서 생활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서 외롭지 않아요.

Q. 해외취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신한 GYC’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이효진 조금 뻘한 표현이지만 저에게는 ‘나침반’이었어요. 각 연수생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베트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낯선 환경에서 혼자였다면 방향과 목표를 잃고 헤맬 수도 있었을 텐데, ‘신한 GYC’가 있어 해외취업이라는 여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세은 저는 ‘신한 GYC’가 해외취업의 ‘바이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분야든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해외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고요. 다만 바이블은 어디까지나 길을 제시해 줄뿐 결국 그걸 읽고 체득해서 결과를 내는 건 개인의 의지인데요. ‘신한 GYC’의 도움과 본인의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방법

서주연 연수생 | ‘신한 GYC’ 7기 폴란드 과정



내가 폴란드 과정을 선택한 건 폴란드의 물류 및 제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커리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폴란드 진출이 활발해져 해외 근무도 더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만 물류 산업에 대한 직무 이해도가 낮아 걱정이었는데, 직무 연수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산업 관련된 이슈를 학습한 경험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일할 때는 영어와 폴란드어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해서 회화는 자신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연수를 통해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문 어휘부터 실제 근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표현, 비즈니스 메일 작성 방법까지 폭넓게 배웠다. 낯설기만 했던 폴란드어 또한 짧은 기간에 크게 향상되어 연수 중 조기에 취업할 수 있었다.

낯선 나라에서 꿈을 이어가게 한 든든한 지원

김한결 연수생 | ‘신한 GYC’ 7기 헝가리 과정

미국 교환학생 시절, 해외취업을 고민하던 중 당시 도움을 주셨던 박사님을 통해 ‘신한 GYC’를 알게 됐다. 여러 국가 중 헝가리를 선택한 건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배터리 산업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헝가리를 유럽 진출의 핵심 기지로 삼고 있고,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밀집해 있어 전기차 산업 전반을 경험하며 배터리 산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업무는 주로 영어로 진행되지만 현지 직원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연수 때 배운 헝가리어가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었다. 또, 자기소개서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하면서 준비했던 경험은 면접에서도 이어져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다. 해외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신한 GYC’는 최고의 교육은 물론 생활 지원, 기수제로 이어지는 연수생 커뮤니티까지 함께 지원하는 든든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취업 후, 현지 정착까지가 해외취업의 완성!

김민지 매니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신한 GYC’ 일본 과정 담당

단순히 해외취업에만 목적을 두면, 재직 중에 현지인과의 소통이나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렵게 합격한 기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신한 GYC’ 연수생은 일반 구직자들에 비해 현지 정착 빈도가 현저히 높은데, 7~8개월이라는 긴 레이스 동안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나아가는 힘을 스스로 기르도록 과정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해내는 역량을 갖춘 연수생들은 해외취업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고, 그 자신감과 성취감이 취업 성공과 현지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 커리어온 참여 고등학생

2,752명

신한 커리어업 참여 청년

150명

신한 커리어온·커리어업

청년들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 진로 탐색부터 실무 역량 강화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AI 기반 성향 역량 검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직무 교육과 실무 중심의 경험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에게는 사회 진출에 앞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화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직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한 커리어온

직업계고 1, 2학년

- AI 성향 역량 검사
- 특화교육 과정
- 국가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계고 3학년

- AI 성향 역량 검사
- 오프라인 취업특강
- 1:1 맞춤형 취업 지원
- PR경진대회 참여 지원

신한 커리어업

취업준비생 ※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재취업자 등

- 스킬 업을 위한 신입사원 교육
- 현직자 특강 및 네트워킹 지원
- 모의면접, 자기소개서·포트폴리오 첨삭
- 기업 채용 연계

강점을 발견하고, 커리어를 설계하다

신한 커리어온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커리어 설계를 지원합니다. 직무 교육과 실무 경험, 맞춤형 멘토링은 물론 AI 성향 역량 검사 기반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기업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취업 사이트 활용법이나 면접 준비를 ‘신한 커리어온’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모의 면접에서 강사님이 저의 강점과 보완점을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셔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목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도 확실해졌습니다.

김서연 학생 |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등학교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 미래를 생각하면 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경험 적립 통장’을 통해 그간의 경험이 어떻게 나의 역량이 될 수 있는지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제 성향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생각해왔던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 해결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만의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김소희 학생 | 성보경영고등학교

제 강점을 알게 된 후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STAR 기법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 기억에 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강점에 맞춰 답변을 구성하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취업 계획을 직접 세워보는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민서 학생 |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실무 스킬업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다

신한 커리어업

취업준비생이 보유한 역량과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막연한 준비에서 벗어나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6주간 가상기업 ‘쏠 컴퍼니’에서 실전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직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은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UX·UI디자이너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과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지만 기획자 중심이라 궁금증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한 커리어업’에서 현업 프로덕트 디자이너에게 멘토링을 받으며 그 역할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사용자 편의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역할”이라며 데이터와 함께 설명을 들었을 때, 직무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예진 교육생 | ‘신한 커리어업’ 9기 디자인 직무 수료

취업을 준비할 때 자기 통제력이 높지 않으면 일상이 무너지기 쉬운데 실제 출근 하듯 6주간 쏠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루틴한 일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나 의견을 듣고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제 아이디어와 기획안이 그분들께 유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진심으로 몰입한 시간이었습니다.

문지은 교육생 | ‘신한 커리어업’ 9기 마케터 직무 수료

혼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퇴근하는 환경 덕분에 더 일에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욱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부건 교육생 | ‘신한 커리어업’ 10기 마케터 직무 수료



지원 청년

93명

1기 참여기업



2기 참여기업



청년 해커톤

앱·웹 개발, UX·UI 디자인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경험과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자들은 6주간 명동 오프라인 사무실로 출퇴근하며, 국내 IT 기업이 제시한 실무 과제를 직접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현직자의 피드백을 통해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감각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갑니다. 또한 전문가의 커리어 코칭과 자기소개서·면접 컨설팅 등 취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실무 경험을 취업 준비로 연결하고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실무 역량 강화	·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통한 실무 경험 축적 · 참가기업 현직자 피드백 제공 · 피칭데이 참여 및 시상
취업 역량 강화	· 취업 패키지 제공(자소서 첨삭, 모의 면접, 인턴십 등) · 전문가의 커리어 성장 코칭

사업 기획부터 서비스 론칭까지, 6주간의 실전 여정

1주차

kickoff 미팅, 사업기획서 작성



신한 익스페이스에 '청년 해커톤' 참여 청년들이 모였다. 개발자,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들은 기업이 제시한 미션을 6주간 수행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는데, 참여자들이 가진 경험과 기술, 강점을 기반으로 팀이 구성되고 기업별로 매칭되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골고루 섞여 한 팀이 되고, 이들은 사업기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청년 해커톤 1기 참여기업	
AXZ(daum 포털)	통합 인터넷 포털 서비스 운영
플랫폼브레드	디지털 옥외광고 플랫폼
병커키즈	AI 기반 맞춤 식단, 운동 습관 플랫폼
dtto9	UX·UI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에이전시
에드이퍼션시	AI·빅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기업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금융그룹의 비영리 공익법인
청년 해커톤 2기 참여기업	
산돌	타이포그래피·브랜딩 콘텐츠 기업
AXZ	포털사이트 '다음' 플랫폼 기업
청소년연구소	생활 서비스 플랫폼 기업
씨드젠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카텍스	차량 운행 기록 서비스 스타트업
클투(문카데미)	스포츠 테마 여행 스타트업
디토닉	시공간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
신한장학재단	미래 인재 발굴 및 성장 지원 공익 재단

3주차

사업화 관점에서 아이디어 재점검



수십 번의 수정을 거쳐 아이디어가 정리됐지만 대표 이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와 CPO에게 서비스 방향을 점검 받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 생각지도 못했던 서비스네요”라고 감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용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능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을까요?”라며 실패를 줄여 나가는 질문이 끝없이 오갔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팀은 기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 프로젝트를 전개하기도 했다. 동시에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도 병행되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대한 1:1 피드백을 통해 개인의 강점과 보완점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주차

아이디어 디벨롭과 멘토링



각 팀마다 배치된 공간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참여팀은 사업기획서를 토대로 각자 조사해온 레퍼런스를 공유하며,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아이디어를 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검토하며, 현실 가능성을 점검했고, 협업을 통해 방향을 조율해 나갔다. 정리된 아이디어는 현업 멘토의 피드백을 거쳐 보완되었다. 멘토는 사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마케팅 관점에서 방향성을 짚어주며,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다듬을 수 있도록 조언했다. 참여자들은 아이디어를 다듬으면서 실무적 감각을 익혀 나갔다.



4주차

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발, 디자인

서비스 개발

디자인

취업사진 촬영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기획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이때,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관점 차이로 의견 충돌도 발생하지만 이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협업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또, 취업 사진 촬영도 진행됐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은 물론 멋진 정장까지 갖춰 입은 참여자들은 입사지원서에 제출할 취업 사진을 찍으며 취업에 대한 실감을 더해갔다.

5주차

서비스 시연을 통한 완성도 강화

서비스 시연 준비

모의면접



모의면접도 동시에 진행됐는데, 실제 면접처럼 심사위원 앞에서 3~4명이 앉아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면접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 속도, 표정, 질문의 의도 등을 다시 고민하면서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만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이를 시연하는 과정을 가졌다. 그 안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새롭게 바꾸면서 점점 더 완성도를 높여갔다. 쇼케이스를 앞두고 참여자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과 리허설을 했

6주차

아이디어 쇼케이스

리허설

피칭데이

시상식

6주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각 팀은 완성된 결과물을 발표하는 쇼케이스 무대에 올랐다. 참여자들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은 단 7분! 심사위원들 앞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결과물을 선보이며, 각 팀의 역량을 펼쳤다. 팀별 발표 후에는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며, 배움을 확장하는 시간도 가졌다. 우수한 성과를 낸 팀에는 시상이 이어졌고, 치열하게 달려온 6주간의 여정이 마무리됐다.

치열한 실무 경험 속에서
찾은 적성

윤여진 디자이너 | '청년 해커톤' 1기 UX/UI 디자인 직무 수료



Q. '청년 해커톤' 참여 기업 중 한 곳에 취업하셨죠?

A. 네, 당시 참여했던 AI 챗봇 회사 벅커키즈에서 콘텐츠 디자이너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벅커키즈는 기업 매칭 전에 희망 기업 1순위로 적었던 곳이에요. 감사하게도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벅커키즈에서 '콘텐츠 디자이너'로 함께 일해 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저 역시 9개월간 부트캠프에 참여한 UX/UI 디자인보다 콘텐츠 디자인이 더 잘 맞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제안이 더 기뻐요.

Q. 둘 다 경험해 보니,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A. 부트캠프도 팀 프로젝트 방식이지만 실제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청년 해커톤'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로 실무를 경험하는 데다, 그 과정에서 현업 담당자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달랐어요. 덕분에 실무에서 요구하는 디자이너의 역할과 저의 강점을 연결해 볼 수 있었어요. 또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필요한 취업 패키지도 제공해 주었고.

Q.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답변 등을 코칭해 주는 취업 패키지는 유용했나요?

A. 네, 이력서 컨설팅은 충격 받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됐어요. 멘토님이 1:1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저의 장단점과 커리어 방향성을 정리해 주시는데, 제가 저를 잘 알지 못한 채 취업을 준비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나를 이해하는 것'이 취업 준비의 시작이더라고요.

Q. 6주 동안에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나요?

A. 저희 B1F팀은 광고회사 플랫폼의 QR코드 기반 참여형 DOOH(디지털 옥외광고) 아이디어 미션을 받았어요. 옥외광고와 디지털광고의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야구장 관객 참여형 게임광고로 방향을 잡게 됐어요. 게임광고이니 일반 서비스보다 더 화려

하고 눈에 띄 수 있게 여러 게임 앱을 참고하면서 시각적인 후킹 포인트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Q. B1F팀이 1등에 해당하는 '개발 혁신상'을 수상했는데, 예상했나요?

A. 수상을 기대하지 않아서 정말 놀랐어요. 프로젝트 중간에 개발자 한 분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역할 공백이 생겼거든요. 쇼케이스 때 시연이 가능할지 걱정됐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팀원들의 도전의식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면서 팀워크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상은 결과보다 저희의 과정을 인정받은 느낌이라 더 뿌듯해요.

Q. 먼 훗날 '청년 해커톤'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아요?

A. 정말 다들 매순간 진심이었다고 기억에 저장될 것 같아요. 동기들뿐만 아니라 강사님, 멘토님, 담당자분들까지 모두 열정적이었거든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많아서 옆에서 배우는 게 많았는데, 아마 저 혼자였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경험일 거예요. 모두가 진심이었던 '청년 해커톤'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카페 운영

7개점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참여자

86만 3,655명

※ 온오프라인 합산

장애인 일자리

취업 기회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제약을 마주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근로사업장 ‘카페스윗(café Swith)’ 운영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인건비와 재료비를 함께 지원하며 청각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



세상과 나, 타인과 나를 연결해 준 일터

임지원 바리스타 | ‘카페스윗’ 본점 근무



Q. ‘카페스윗’에 입사한 지 어느덧 3년 차예요. 바리스타로 일해 보니 어떠세요?

A. 제가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보니, 스무 살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는 취업하면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되고, 사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스윗’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 역할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매일 이 ‘커피’를 매개로 사람,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고 있거든요.

Q. 커피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걸 언제 많이 느끼셨어요?

A.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고객과 눈을 마주치고, 저의 작은 친절로 손님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드릴 때, 그 의미를 실감하고 있어요. 또, 바쁜 상황에서 동료들과 서로 도와가며, 수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느끼고 있죠. 소통은 말이 아닌, 마음과 태도로도 충분하거든요. 이 모든 순간이 쌓이면서 ‘일’이 저를 성장시키고 사회와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Q. 일하면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A. 네,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하루를 잘 마쳤을 때 어제보다 더 성장했음을 느껴요. 또 ‘카페스윗’에서 쌓은 경험은 저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평소 도전해 보고 싶었던 전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전시회장에 걸린 임지원 바리스타의 작품
〈푸른 장미의 속삭임〉

‘농인의 날(6월 3일)’을 기념해 커피백으로 상품화된
임지원 바리스타의 작품 〈그림 도둑〉



Q. 전시라면,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A. 제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그림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스윗(Swith)한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제 작품이 6개월간 ‘카페스윗’ 정릉점에서 전시됐어요. 약 1만 명의 고객분들이 작품을 관람하셨고, 감사하게도 제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정말 귀한 경험이었어요.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예술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됐어요. ‘카페스윗’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도 생겼어요.

Q. ‘카페스윗’과 같은 공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A.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장애인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곳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회들을 만나 엄청난 성장을 했거든요. 아직 배울 것들이 많아 기대도 되고요. 앞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사회와의 동행,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다

SOCIETY

더 나은 내일은 혁신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함께 실현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경제 주체까지,
각자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미래로 확장해 나갑니다.

#창업 생태계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경제 지원

#상생 공동체
솔선수범 릴레이



스타트업 지원

신한 스퀘어브릿지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기술을 시장으로 연결해 나가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거점별 특화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투자자·지역사회와의 연결로 협업 기회를 확장합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넓히고, 기술과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육성 멤버사

99개사

투자 유치(연계)

786억 8만 원

기업 가치 상승

2,824억 9,000만 원

연간 일자리 창출·유치

1,219명

CES혁신상 수상

17개사

아기유니콘 선정

3개사

대기업-스타트업,
협업으로 만드는 시너지

LG생활건강 NBD팀 이사도 |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10기 수요기업

리소리우스 정우석 이사 |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10기 멤버사



Q. 리소리우스는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인가요?

A. **멤버사** 저희 리소리우스는 뇌파(EEG) 등의 생체 신호를 딥러닝 기술로 중추신경계 상태를 정량화해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번 '신한 오픈이노베이션' 10기 멤버사로 참여했는데, LG생활건강과 매칭되어 PoC(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개념 증명) 단계를 밟고 있어요.

Q. LG생활건강과 리소리우스 두 기업이 협업 파트너로 매칭된 이유가 있나요?

A. **수요기업** 리소리우스가 보유한 뇌파(EEG) 분석 디바이스와 알고리즘 기술의 완성도가 뛰어나 이 기술이 고객 분석에 활용 가능성이 있을지 확인하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역량 또한 우수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영역과의 연계 가능성과 내부 역량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멤버사 저희는 LG생활건강이 보유한 소비자 경험과 제품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저희 뇌파 기술이 소비자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뉴로 마케팅(뇌 반응 기반 소비자 취향 분석)과 소비자 반응 해석에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사의 관심 영역이 맞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이번 협업으로 양사가 이루고자 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A. **멤버사** 각각 경험과 생체 신호 해석이 실제 사업적 인사이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소비자 경험 기반의 문제를 제시하고, 저희는 뇌파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PoC 적용 가능성 및 운영 구조 점검, 유효성 반복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Q. 협업 파트너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신한 스퀘어브릿지'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수요기업** 저희가 직접 스타트업과 협업을 추진하면 서로의 니즈와 협업 방식을 조율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사전에 수요기업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스타트업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협업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간적·비용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양사 간 협업 과정에서 전담코치는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A. **멤버사** 전담코치는 저희 뇌파 기술과 아이디어를 수요기업이 이해하기 쉬운 사업 언어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재구성하니,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낮아

저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요기업 대기업 시스템에서는 스타트업의 의사결정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도 대기업의 구조와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죠. 전담 코치가 양측의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조율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까지 함께해 주면서 전반적인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협업이 성공적인 오픈이노베이션 사례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이나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 **수요기업**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협업을 통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사업적 성과가 창출되어야 하고, 리소리우스의 기술이 당사 연구 고도화와 내재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술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사 이번 협업을 통해 비의료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뇌파 기술의 가능성과 시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이 PoC를 검토하는 기준을 체감하며, 이후 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어 의미 있는 성공 사례로 이어질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된 베트남 진출

뚜잇 김지민 공동대표, 김민찬 CTO |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2기 멤버사



- Q. 뚜잇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가요?**
- A.** 저희 뚜잇은 VR 콘텐츠를 활용해 시뮬레이션 재난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론·영상 중심의 안전교육은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체감도가 12%에 불과하지만 저희의 시뮬레이션형 VR 재난안전 교육은 2주 후에도 70%까지 기억할 정도로 교육 효과가 뛰어납니다.

- Q. 국내 시장이 아닌 베트남 진출을 먼저 고려한 이유가 있나요?**
- A.** 국내 시장에서는 두 가지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현장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VR 기반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이었습니다. 2025년 PoC를 통해 공공기

관에 기술 역량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 받았지만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레퍼런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존 안전교육 시장이 영상이나 강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VR 교육의 효과를 설득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해 해외에서 성공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Q. 그중에서도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 A.** 저희 솔루션은 분야 특성상 B2B, B2G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는 현지 이해력이 높고, 네트워크를 갖춘 파트너와의 협업이었습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글로벌(베트남)'은 MSD United Way Vietnam, ZODIAC 등 현지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낮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 가능성을 검증하는 '소셜 오픈이노베이션'의 구조도 이상적이었습니다.



- Q. 현지 PoC를 진행하며, 마주한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 A.** 현지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베트남 학생들은 VR 기기 자체를 처음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안전 훈련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튜토리얼 추가, 교육 콘텐츠 재구성 등 베트남 환경에 반영한 모델링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Q.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통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 파트너십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어땠나요?**
- A.** 이전에는 '좋은 기술을 만들면 시장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기술 개발, 실증, 파트너십이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현장 피드백이 곧바로 기술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이 다시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면서 시장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현지 파트너 연결, PoC, 멘토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시장 조사부터 실증, 후속 사업 논의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연결하는 협력 매핑

MSD UWV Nguyen Phuong Linh 대표 |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관계사



- Q. 글로벌(베트남) 사업 관계사로 참여 중인 MSD United Way Vietnam(이하 MSD UWV)는 어떤 기업인가요?**
- A.** 저희는 베트남의 공동체를 결집하고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베트남 현지에 안착해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며 소셜 임팩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 Q. 베트남의 사회문제 해결에 뚜잇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셨나요?**
- A.** 베트남에서는 익사, 교통사고, 화재, 홍수, 태풍 등 다양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주로 교과서 중심의 이론 교육에 그치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뚜잇의 XR 기반 교육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았습니다.

- Q. 뚜잇과 수요기업 조디악(ZODIAC)의 매칭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A.** 초기에 뚜잇에 대한 확신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성원들의 태도와 실행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며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oC를 거치며 솔루션이 현장에 맞게 정교화되고, 실제 성과를 입증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뚜잇의 가능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Q. 현장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변화나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A.** Anh Linh Charity School에서 진행된 PoC 과정에서 학생들이 XR을 처음 접하며 보였던 반응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해 보는 경험을 통해 참여도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함께 커지는 모습이었죠. 이는 교육 효과를 넘어 기회의 확장과 학습 격차 완화,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Q. MSD UWV가 바라보는 '소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요?**
- A.** '소셜 오픈이노베이션'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글로벌(베트남)'은 이러한 연결을 실제로 구현하는 플랫폼으로, 기술과 사회적 필요, 스타트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확장됩니다. 스타트업 역시 기술 개발을 넘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을 성장 전략으로, ‘ESG 인큐베이션’



탄소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는 시대.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구’는 ESG 특화 거점으로 스타트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 컨설팅을 통해 멤버사의 배출 현황을 진단하고, 감축 전략과 인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준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기업은 자사 공장뿐 아니라 협력사와 소비자의 활동까지 포함한 전체 가치사슬의 탄소 배출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LCA(Life Cycle Assessment), Scope 1·2·3 체계, ISSB 국제공시기준 등 다양한 글로벌 기준을 따라야 한다. 대구 거점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스타트업이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빌드업 코칭을 시작으로 모델링, IR 컨설팅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2025 멤버스데이’



신한금융그룹이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을 통해 2020년부터 민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서 ‘2025 멤버스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장에 참여한 딥테크, 바이오테크, 친환경/지속가능한 기술 분야의 멤버사는 데모데이를 통해 자사의 보유 기술과 사업 전망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보였다. 발표 이후에는 투자를 유치하거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투자사 및 오픈이노베이션 기관과의 1:1 미팅(Meet-up)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새로운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 창업공모전을 함께 개최해 전국의 청년 예비창업자 10팀이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초기 창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운 IR 코칭

그리핀 로보틱스 심승현 대표

| 대학생 창업 공모전 ‘HERO IR’ 대상 수상팀



Q. 그리핀 로보틱스가 ‘2025 대학생 창업 공모전 HERO IR’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비즈니스인가요?

A.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상과 공중을 자유롭게 오가며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Roll & Fly’ 하이브리드 드론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굴러 이동하다가 순간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구조로, 360도 카메라를 탑재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좁고 위험한 공간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Q. ‘HERO IR’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기술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를 투자자와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적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한 창업대회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때 기술을 아는 것과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에서는 수상보다 투자자와 심사위원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확인 받고 싶었습니다.

Q. ‘HERO IR’이 다른 창업 공모전과 다르게 느껴졌던 점이 있나요?

A. 단순히 발표 결과를 평가하는 대회가 아니라,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 창업팀도 실제 시장성과 사업 방향을 고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IR 코칭과 피드백 과정도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되어 초기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Q. 공모전 참여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A. IR 고도와 코칭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멘토님께서 “기술이 아니라 고객의 고통(pain point)부터 이야기하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 이후 발표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술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



는지를 전달하니, 듣는 사람도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습니다. 또 피치덱 디자인 코칭을 통해 메시지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같은 내용도 훨씬 선명하게 전달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한 스퀘어브릿지’는 실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체감했습니다.

Q. 실제 IR 피칭 경험을 통해 느낀 변화가 있다면요?

A.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질문의 깊이였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이 많았다면, 이후에는 경쟁사 비교나 기술 디테일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Q. 공모전 대상 수상 이후, 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신한 스퀘어브릿지 HERO IR 대상팀’이라는 타이틀이 생기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신뢰를 얻는 것인데, 이 타이틀이 실제 미팅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사업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법인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용 펀드

5개

사회적기업 투자

4억 5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전용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투자와 금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과 확장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펀드 1호



2019년 투자 - 2022년 회수



신한 그린웨이펀드 1호



사회적기업펀드 2호



신한 HGI사회적기업펀드 1호



사회적기업펀드 3호





솔선수범 릴레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그룹사 임직원들이 전용 기부 플랫폼에서 나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로 모금을 진행합니다. 임직원 누구나 사회공헌의 기획자이자 실행자가 되는 ‘솔선수범 릴레이’는 2025년 경북 안동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창립 24주년을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금액
3억3,769만1,100원



솔선수범 릴레이 5차 산불 피해 복구 및 소방 영웅 지원

모금 목적 이재민 생필품과 긴급물품 지원, 소방·구조 인력 이동형 밥차 지원
모금 기간 2025년 4월 3일 ~ 4월 14일
모금액 **2억5,199만3,000원**



창립 24주년 기념 캠페인 사회적 위기 청년 자립 준비 지원

모금 목적 위기 청년 학습 보조기기 지원
모금 기간 2025년 8월 22일 ~ 8월 28일
모금액 **420만 원**



솔선수범 릴레이 6차 자립준비청년 지원

모금 목적 자립준비청년 주거환경 개선, 진로·진학 준비 지원
모금 기간 2025년 12월 22일 ~ 2026년 1월 9일
모금액 **8,149만8,100원**

젊은이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홍상○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첫 출발, 그 시작을 응원합니다.
정건○

불안한 청춘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고재○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함께 더불어 가는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김태○



문화예술·지역사회와의 동행,
공감을 나누다

CULTURE&ART, COMMUNITY

#메세나
문화예술지원사업

#인류 공동체
해외장학사업

#연구 활성화
학술지원사업

문화예술은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시야를 넓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래와 꿈을 응원하는 장학과 학술 지원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합니다.
이처럼 문화와 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원은 서로 다른 배경을 넘어서는 공감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동행을 이어갑니다.



클래식 음악 유망주 선발

7명

수상자 연주회 개최

15회

문화예술지원사업

국내 음악 인재들이 자신만의 목소리와 연주로 더 넓은 무대에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금융권 최초로 ‘신한음악상’을 제정해 2009년부터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인재에게 해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자 연주회를 통해 그들의 성장과 그 안에서 완성된 아름다운 선율을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상	해외 정규 음악교육 경험이 없는 중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생		
부문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내용	시상 및 장학금	수상자 육성	음악회 개최
	· 신한음악상 : 부문별 1인 선발, 장학금 연 400만 원씩 4년간 지원 · 장려상 : 부문별 1인 선발, 장학금 400만 원 일시금 지원	해외 유명 음악학교의 마스터 클래스 ‘영 아티스트 챌린지’ 수료 지원	· 수상자 연주회 S-클래식 위크 · 신한아트홀 독주회



장학생 선발

165명

장학금 지원

8,500만 원



해외장학사업

아시아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국가 간 교육 기회의 격차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현지 법인을 통해 1997년부터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와 미래에 기여하는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상	아시아 7개국 초·중·고·대학생
내용	각국 상황에 맞게 장학금 지원



연구원 선발

13명

장학금 지원

10,000달러

학술지원사업

금융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미재무학회(Korea-America Finance Association, KAFA)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연구를 이어가는 연구원들이 학회를 통해 한국 연구진들과 학문적으로 교류하고, 연구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대상	한미재무학회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
내용	우수한 학술 업적에 대한 시상 및 포상, 장학금 지원 신한금융공학상 시상 최우수 논문상 시상 박사과정 장학금 지원

SHINHAN ESG VALUE INDEX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와 결과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회적가치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사회적가치 창출 영역을
 ❶ Social Savings(사회적 비용 절감액) ❷ Social Value Added(창출된 부가가치)
 ❸ Outcome(결과)로 구분해 측정된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신한금융그룹 고유의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
 (Shinhan ESG Value Index)를 적용해 구한 값입니다.

※ 참고 : Shinhan ESG Value Index에서 제시한 사회적가치는 다양한 가정과 추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반 요소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ESG 경영활동의 시장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프로세스



2025년에 창출한 사회적가치

신한금융희망재단은 2025년에도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용과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맞춰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청년과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기존 사업을 한층 고도화했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청년 해커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반 성장을 이끄는
 ‘상생형 공동작장어린이집’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약 646억 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며 전체 SROI 331%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전 사업 분야에서 높은 SROI를 기록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로 본 주요 성과

- ✓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전체 사업 **SROI 331%** 달성
- ✓ 약 194억 원을 투입(Input)해 약 646억 원의 사회적가치 창출(TSV)
- ✓ [청년] 분야는 창출 가치 확대와 함께 **SROI 294%**로 상승
- ✓ [사회] 분야는 자원 투입 효율화를 통해 **SROI 808%** 기록
- ✓ 신규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 ‘청년 해커톤’도 **SROI 809%** 달성

연도	2024년			2025년		
구분	Input	❹ TSV	SROI	Input	❹ TSV	SROI
가정	8,587,860,275	15,525,502,534	181%	9,713,816,999	16,411,143,446	169%
청년	5,563,783,330	14,982,287,873	269%	5,999,036,971	17,657,462,883	294%
사회	6,632,506,884	32,798,736,390	495%	3,781,575,525	30,548,702,584	808%
합계	20,784,150,489	63,306,526,797	305%	19,494,429,495	64,617,308,912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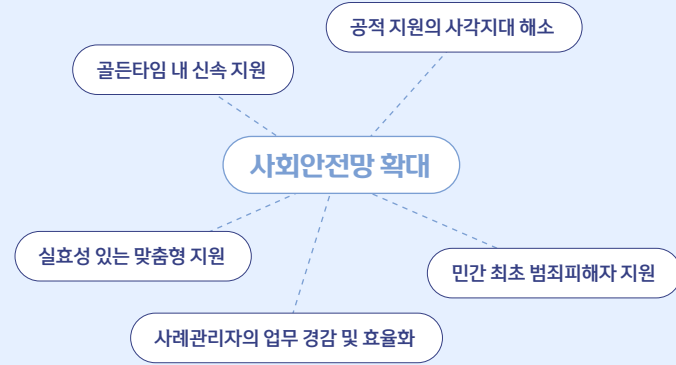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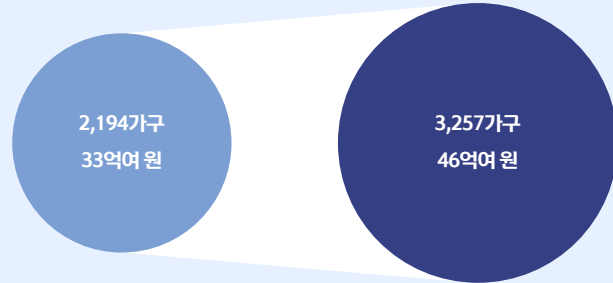
※ SROI는 사회적 투자 수익률의 약자로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 대비 창출한 사회적가치 환산액❹을 나타낸 백분율임.
 ※ 본 보고서 58~60쪽에 수록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해외장학사업, 학술지원사업은 ESG 가치 측정에서 제외함.
 ※ [사회] 분야의 사회적가치 창출 환산액은 소셜 벤처와 사회적경제 펀드의 성과에 따라 차후에 변동 가능성 있음.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지원 가구 48% 증가, 3,257가구가 신한과 함께 위기 극복

● 2024년
● 2025년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SROI 18%p 상승, 사회적 지지 속 청년 1,800명의 취업 준비 뒷받침

● 2024년
● 2025년



청년 해커톤

신규 실무 경험 프로젝트로 실무형 인재 양성, SROI 809% 달성



직무 경험 청년
93명



직무제공 기업
13개사(중복 제외)



신한금융희망재단 2025 사회책임보고서

발행 정보

발행처 신한금융희망재단 사무국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0길52 신한익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문의 shdf@shinhan.com
홈페이지 www.shinhanfoundation.or.kr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글과 이미지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신한금융희망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